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요 9:35-38)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에 의해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고 가정에서 축출을 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며 국가에서는 반역자로 낙인찍히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친구도 이웃도 가족도 국적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1. 필수 불가결한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요 9:35하)

이 질문은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어 이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고백은 없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 아니면 No입니다. Yes와 No의 중간은 없습니다. 이 대답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신앙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존재들입니다.(by him, through him, in him, of him)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그분을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2. 신앙고백의 요청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신앙고백의 요청입니다. 입술로 나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을 하기 전에 신앙고백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생명의 주로 믿습니까?” 목사가 물을 때 “네”라고 한 성도에게 세례를 베푹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간절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원하신 것입니다.

눈을 뜬 사람은 출교를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종족에게서 끊겨지는 어려움을 당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야 할 자리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3. 피할 수 없는 질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누구나 받아야 할 질문이요, 지금 이 순간뿐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할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하여 “네” 혹은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으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매우 정성스럽게 심혼을 다하여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펀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서도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못 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종했고 영적인 체험도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설교 중에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야 믿는다고 소리를 지를 때에 “나도 믿습니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더니 온 교인이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할 수가 없다가 혹은 어찌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믿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를 예수님은 찾아가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며 만나주셨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36절). 이 때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37절).

아직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는 자신에게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6.25전쟁을 상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적도 있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으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고 현재 우리는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주변 국가의 침범한 대립으로 정세는 불안하고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성도 모두가 우리에게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안보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느껴며 기도해야겠다.

2022 홍해작전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6. 6(월) - 6. 18(토) 새벽 5시 30분 - 6시

특별새벽기도회 : 6. 20(월) - 6. 25(토) 새벽 5시 - 6시 / 강사 : 손달익 목사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 51:3)

2022년 홍해작전이 오늘 찬양예배 시 개전 예배를 시작으로 20일간 '말씀과 기도운동'을 시작한다.

6. 6(월) - 6. 18(토)은 새벽 5시 30분 - 6시 까지 대면 및 영상 중계로 드러지며 6. 20(월) - 6. 25(토)은 새벽 5시 - 6시까지 손달익 목사를 강사로 특별새벽기도회를 갖는다.

2022 홍해작전 기간(6. 6 - 6. 25) 중에 전도자가 초신자를 새벽기도회나 주일예배에 초청하여 참석한 경우, '2022 홍해작전 전도 초청자 카드'를 작성하여 본당 2층 안내데스크 '전도 초청자 카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란다. 6. 26(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증경 총회장 김태영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승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잡자는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새벽을 깨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2 홍해작전 공동기도문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1. 회개와 갱신

시대와 상황을 핑계로 예배와 섬김에 나태해진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첫사랑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 교회와 사명

서울교회가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3.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되어 믿음의 계대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터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4. 이웃과 사회

가난과 질병, 갈등과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5. 선교지와 세계 교회

선교사와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선교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계 교회가 연합과 일치로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6.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새로워지고, 복음화 된 통일 조국 이루어지며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 개강 : 6월 8일(수) 1부 예배 후

· 장소 : 101호(웨민홀)

· 강사: 손달익 담임목사

코로나19로 방역수칙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다락방 리더 훈련이 이번 수요일에 시작된다. 교구일군(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2부 예배 봉헌부 모집

주일 2부 봉헌부에서 봉사하실 성도를 찾고 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 문의 : 흥한규 집사 010-5462-0497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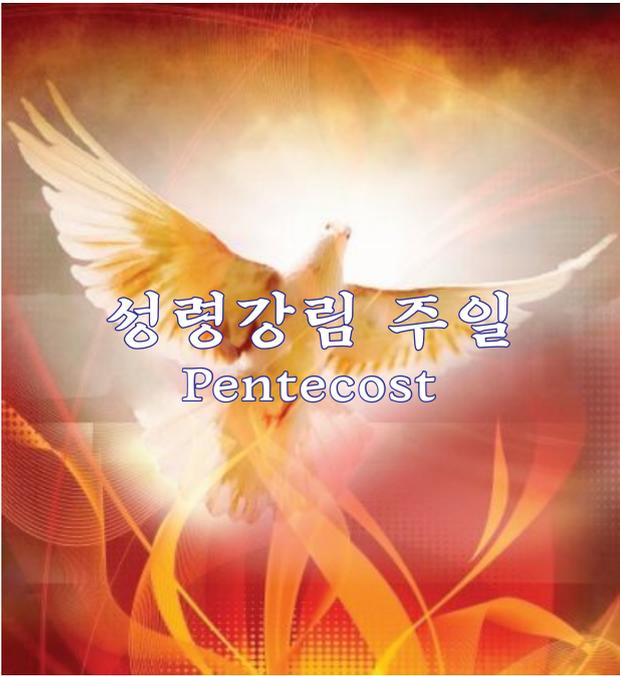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교회 직원 채용 공고

- 경리(회계) 담당, 식당 담당 -

올해 말 정년이 되는 교회 경리(회계) 담당자의 후임 직원과 교회 식당에서 상시 근무할 직원을 미리 채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 자격과 조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강림 주일 Pentecost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곡식을 감사하는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흔히 ‘맥추절’(출 23:6)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밀과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칠칠절’(출 34:22)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초실절에서 7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순절은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예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새롭게 출발시켜 주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첫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던 때(행 2:1-41)를 기념하는 절기로 승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의 회중들에게 유대의 전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된 것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였을 때 3천 명의 회심자를 얻는 역사적인 선교의 장이 열리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교회가 메시아의 완성된 시간의 상징으로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편집부)

2022 흥해작전

내일 새벽기도회에서 뵙겠습니다!



김영희 집사
(2022 흥해작전
기획분과장)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던 30대의 시절,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등에 업고 새벽을 깨우며 흥해작전에 참여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나에게 반드시 건너야 할 흥해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로 매달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가시고, 어머니는 세례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형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

을 회개하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신 어머니께서 형님의 손을 잡고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번 흥해작전에는 믿지 않는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같이 동역하던 교회의 스테반 형님들이 생각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시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세상 끝까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흥해작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일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원이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

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번 흥해작전에는 간절히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었을 때, 교회의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와 교회의 힘든 시기를 겪는 중 떠났던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 근처의 이웃분들이 흥해작전을 통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좋으신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매 주일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흥해작전을 통해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온 교회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흥해를 건너는 2022년의 흥해작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흥해를 넘어 가나안으로, 팬데믹을 넘어 부흥으로!”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선예 성도 (교구)

20여 년을 해외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정착한지 1년여 만에 저를 서울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등록 후,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는 권사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계속 로컬 교회를 다니며, 늘 성경공부에도 참여해 왔었기에 사실 저는 새가족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새가족 교육에 열정적이신 전도사님을 통해서 잘못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매주일 새

가족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었던 저를 위해서 수요일 오후에 따로 개인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나를 맡기고 주님께 의존하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주 읽었던 성경 구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 가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떨림이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날 때는 4주가 너무 짧아서, 8주 교육을 받으시는 초신자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서울교회에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제2회 KCMC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 참여

호산나대학 애견케어학과 5명의 학생은 지난 29일(주일) 천안 연암대에서 열린 한국의 반려동물 교육인증 KCMC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견 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호산나대학을 비롯한 연암대

학교, 안동과학대학,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등 학생들 50개 팀이 참여했다.

호산나대학 참가 학생들은 평소 학교에서 훈련한 대로 자신감 있게 대회에 임해 타 학생들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실력을 뽐

냈고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김지수 군이 이번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2년 연속 대회에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27일 호산나대학에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대학 축제가 재학생, 취업한 졸업생,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코로나19 극복과 선·후배 단합, 대학 문화를 즐기기 위해 준비된 이번 축제는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다.

5월의 푸르름이 가득한 날씨 속에 예매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선배들과 만남, 다양한 먹거리 판매, 포토 존, 마사지, 미니 게임(물풍선, 격파, 사격, 셔틀 록), 페이스 페인팅, 오징어 게임, 노래방 등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장기자랑, 댄스파티, 폐회식으로 축제가 마무리되었다.

축제에 참가한 김종민 신입생은 “대학생이 되어 첫 축제를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물 풍선 던지기 게임이 제일 재미있었다. 내년 축

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업생 조용아 군은 “코로나19로 학교에 오고 싶어도 못 왔는데 축제에 참여해 반가운 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10월 학교에서 진행되는 취업자 캠프 꼭 참석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호산나대학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으로 재학생, 졸업생, 부모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정

- 식사 제공 : 2교구 이종욱 집사
딸 이신영 성도, 이신원 성도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6일	월	욘 11-14		요 1-5	
6월7일	화	욘 15-18		요 6-8	
6월8일	수	욘 19-21		요 9-12	
6월9일	목	욘 22-26		요 13-17	
6월10일	금	욘 27-30		요 18-21	
6월11일	토	욘 31-33		행 1-7	
6월12일	주일	욘 34-36		행 8-1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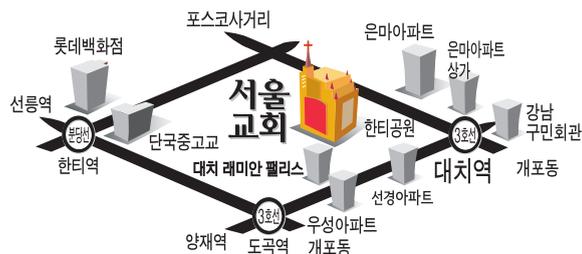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홍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2022년 홍해작전이 교회의 상처와 팬데믹의 홍해를 넘어 새로운 부흥의 시대로 나아가는 영적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3.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도록 친히 통치하여 주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